

第3主題 討論要旨

申弘(사회자) : 최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섯분의 학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의 김학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金允求(충북대) : 서울대학교에 재직하시는 교수님으로서 이상적인 그리고 현실을 감안한 연구를 하시고, 또 앞으로 여기서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서울대학교의 교과과정개편에 참고하시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가 전국에 걸친 법학교수의 토론장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속해 있는 충북대학교의 사정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대학이 법과대학으로 독립된 것은 불과 3~4년 밖에 안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과과정을 편성함에 있어 당장에 문제되는 것이 4년제에서 교양과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교양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이를 허락치 않습니다. 우선 교수요원이랄까, 그밖에 학생들 레벨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국의 몇개 대학의 교과과정을 모델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물론 새롭게 교과과정을 만들게 된 배경은 이른바 公法學科와 私法學科로 설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일학과 시대에는 그렇게 큰 고민없이 전통에 따르면 큰 과오는 없으리라고 믿고 일해 왔는데 공·사법학과로 분리·설치하게 되니까 매우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공법학과와 사법학과가 어떤 개념을 갖는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공·사법학과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최교수님께서도 案으로 제시하셨고 이 분야에 관한 연구를 깊이 하시는 몇분 교수님께서도 이미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학과편제에 관해서는 현실에 맞는 것을 제도화 해보자 해서, 공·사법과로 하느니 법학과로 하고, 한개과를 더 요구하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다면 경영법학과와 같은 특성의 명칭을 갖는 과를 설치해서 兩科體制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가 공법학과, 사법학과 하니까 전국이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로 못해서 아우성일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학과정원을 증원한다는 배경이 사실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방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二科體制로 가야한다는 현실만은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학과가 공·사법학과로 되어야 하느냐 하는 명칭문제——조금 지역적인 것 같습니다만은——를 조금 고려하고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三科體制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확립기에 들어섰다고 하는 서울대학교의 공법학과, 사법학과라는 二科體制 이외에 三科體制로서 각 대학

이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案, 소위 경영법학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三科體制로 가야 할 현실이 있다고 보는데 삼과체제로 갈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三科體制로 갈 때에 가령, 법학과와 경영법학과로 했을 때에는 어떠한 과급효과가 있을런지, 이런 것이 지방에 소재한 대학이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내에서는 웬만한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대학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학과설치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심각하고 연구가 많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몇개과의 체제나, 공법학과나 사법학과나, 이것이 확립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교과과정에 관해서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법학교육의 목적을 직업교육으로 볼 것인가, 교양교육으로 볼 것인가, 이것 자체 하나 결정하기도 어렵고, 직업교육도 하고 교양교육도 해야 한다라고 되고 있지만 지방대학은 기업체로 가는 학생수의 비율이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미 서울대학교가 개발한 커리큘럼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정리·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견고 있는 파형을 면치 못할 상황입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는 학생수가 교수숫자를 결정하고 그 대학이 교과과정을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재정난과 물적·인적시설의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교양필수문제입니다. 법학전공을 위해 받아야 할 교양필수과목 하나 하는 것도 영세한 대학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대학내에 있으니까 그 종합대학이 갖고 있는 틀을 깰 수가 없습니다. 법과대학만 이러 저러한 先修科目을 가르치겠다고 해봐야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여러 그룹, 여러 레벨의 대학들이 법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모델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개혁을 위해 발전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 회의론을 갖게 됩니다.

사회자 : 김학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의 김철용학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鐵容(건국대) : 최교수님의 발제의 글은 교육년한, 학과편성, 교과과정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년한에 대해서는 최교수님이 치밀하게 분석하셔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법과대학의 교육의 목표는 오전부터 직업교육이나 교양교육이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최교수님의 결론대로 두 목표중에 직업교육에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기에 3:1 비율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견해에 저도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학과편성문제인데, 발제의 글은 서울대학교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만, 건국

적으로 검토하면 저 개인의 의견은 오히려 3개학과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어떻든 간에 사법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행정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그 다음에 기업체 법률직종사자의 양성 또는 전문직 인재양성을 지향하는 학과, 이렇게 3개학과안에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기업체 진출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다수라는 현실입니다. 대체로 1년에 배출되는 졸업생수가 현재 4,800여명 정도 됩니다만은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합격자수를 고려해볼 때 거의 압도적인 법과대학 졸업생들이 사법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3개학과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종의 증대현상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과정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교수님께서 발제의 글에서 교과과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법의학 외에 의료법도 들어가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공법학과에만 입법학이 들어가 있는데 사법학과에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법이 사법학과에 들어 있는데 공법학과에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토지공법이 공법학과에 있는데 오히려 토지법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3개학과안에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절차법과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다시피 지금 행정공무원들이 국가 또는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는 경우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길 수 있는 재판도 지고 있고, 그 패소부담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법과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실무과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사무처리법과 같은 과목도 교과과정에 넣어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는 교과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회의를 갖도록 합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하지만 저의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시규석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徐圭錫(전북대) : 최교수님께서 교육년한문제, 양학과체계문제를 현행대로 4년제로 두고, 양 학과로 분리·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신 문제와 제시하고 있는 교과과정개편안에 대해 우려되는 점을 두가지만 지적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선 4년제, 5년제, 6년제 및 이수학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법학교육의 이념이나 목적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그전부터 법과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님들이 모두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도 법과대학 학장님들의 모임도 있었고, 법과대학교수들의 전국회의에서도 교육부나 관계요로에 건의를 하면서 발전적 차원에서 5년, 6년 또는 보다 많은 학점의 이수방향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에, 서울대학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고착화시키자는 의도로 논리를 전개시킨 것이 아닌가, 좀 어렵더라도 더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교수님이 마지막에 교과과정 개편안을 제시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신설을 하다보니 과목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과목이며 상당히 무거운 과목이라고 하는 법철학, 법사상, 민사소송법과 같은 과목만 하더라도 교수공채모집을 하면 실제로 적격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형편인데 과목이 개발되고, 다양화될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교수확보의 문제를 최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의견이 계시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관동대학의 윤익수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益洙(관동대) : 먼저 교육년한에 관한 문제에서는 4년제안, 5년제안, 6년제안이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개인적 견론으로서 교양과정 1년, 법학전공과정 3년, 법조교육으로서 대학원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案대로 하되 의과대학의 국가시험과 마찬가지로 국가시험을 도입하여 석사과정 이수자의 적어도 70~80%의 사람들에게 법조자격을 주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번째로, 학과편성에 있어서는 지금 2개학과안, 3개학과안, 단일학과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일학과였습니다만은 법과대학으로 되면서 서울대학교를 효시로 공·사법학과로 구분되었습니다. 私法學科는 주로 법조계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私法學科의 명칭보다는 司法學科라는 명칭이 저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행정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과 그외에 기업체에 진출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行政·經營學科라고 하는 것이 그 학과의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과정 문제에 있어서는 신설교과목의 확충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점과 관련해서 서울대학의 경우 150학점, 몇개 학교가 160학점 내지 150학점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주장은 하지만 교무위원회 또는 교과과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140학점을 채택하고 있는데 적어도 140학점으로는 지금 가장 역사가 깊다고 하는 법학교육을 충분히 할 수가 없고, 특히 기초법학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차체에 적어도 이런 심포지움에서 어떤 결의안을 채택하여 법과대학의 교과과정을 160학점으로 해야된다는 건의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년한의 문제, 학과편성 또는 대학원의 문제, 교과과정의 문제 모든 것은 사법시험제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학교수뿐만 아니라 법조계,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 모두가 참여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는 기회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윤학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최병옥학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崔柄煜(이화여대) : 지금 소개받은 최병옥입니다. 첫째로, 법과대학이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한 교육년한을 연장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문제로 지적되는 것을 풀만한 묘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발제자하고 생각을 같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학과편성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걸레되는 말씀이 되더라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대학에 따라서는 깊은 연구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하신 점을 인정합니다만은 또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수 늘리고, 교수수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사립대학의 경우는 두개학과로 나눌려고 해도 나누기가 어렵고, 또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와서도 서울대학의 양학과와 교과 과정을 보니까 10개 내지 12개까지는 같고 한두개 교과가 학과마다 다르도록 편성되어 있고, 이쪽에서 배운 것을 저쪽에서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학과가 나누어져서 정말 이 학과를 나온 사람은 범조제로, 저 학과를 나온 사람은 행정제로 실제적으로 가는지 그런 검증적 연구도 나와야 이 얘기를 뒷받칠 수 있는 것이지 목표를 그렇게 잡았고 그래서 나뉘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별로 납득도 안되고 실감도 안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개학과안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경영법학과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체에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이 기업운동을 법적으로 하지않기 때문에 기업법을 한 사람을 특별히 뽑아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학문적으로 분명히 분화될 수 없는 것을 쪼개 놓고 과연 그런 목적에 따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잘되지 않습니다. 디쿤다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과를 나누면 교수를 많이 뽑아야 됩니다. 물론 대학교수를 많이 뽑는 것에 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사립대학의 경우 한 교수가 적어도 9시간을 담당해야 합니다. 9시간을 담당한다고 할 경우에 현재의 교과과정을 갖고는 9시간씩 줄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과정과 맞물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교과과정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교과과정문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저희 대학도 여러 대학의 교과과정을 비교해 보고 최소한 필요한 것을 찾아보고 어려움속에 하는데 저희가 개설하고 있는 과목수가 50개 미만입니다. 서울대학의 경우 양과를 합한 과목수가 저희 대학보다 30~40개가 더 많아 저로서는 대단히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 제가 코멘트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왕에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시고, 새로운 개편안을 제시하셨으니까 되도록 많은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셔서 운영을 해보시고, 그 좋은 결과가 실험결과로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나라의 사립대학의 경우에 모든 것을 재정난에 결부시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학이 꼭 가야될 길, 해야될 일이라고 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되고, 또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를 느껴서 만든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아무리 돈없는 학교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대학이 선도적 역할을 해온대로 그 기능을 계속 발휘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시고, 더 많은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설치하셔서 많은 과목의 가능성을 다른 대학에 주시고, 대학간의 정보교환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인 의미도 없는 비판·토론을 하기보다는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격려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과대학이 정말로 내실있고 우리 나라의 장래를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법학교육을 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만 그치겠습니다.

사회자 : 최학장님 감사합니다. 최송화교수님께서 다듣고나신 소감이 있으시면 간단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崔松和(서울대) : 주어진 주제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이 맡은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3개 학과안에 대한 필요성, 교육년한에 대한 논의 그리고 교과목개설에 관한 현실적 대응,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좀 깨어있자라는 것이고, 각 대학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힘을 모으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공통점이 많고 공동의 문제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편안이라고 제시한 것도 하나의 저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 선생님과 여러 대학에서의 보다 현실성있는 대안들이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